교육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2.(월) 10: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3.(화) 14:00 브리핑시
(지 면)2026. 11. 3.(화) 14:00 브리핑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 시동

- 총 130개의 지역에서 사업 신청, 교육혁신선도지역 43개 지역 지정
- 【관련 국정과제】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중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이다.

공모(7.9.~9.30.) 결과,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141개 지역 중 130개 지역(1유형 89개, 2유형 41개)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 중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평가를 위해 학계·현장(학교·마을교육)·공공기관 등에 속한 지역·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0개 지역의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비전, 필수·자율 과제, 자원 확보 등),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성·운영(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등), 예산 확보·집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개요 및 지정결과 >

		1유형	2유형	
개요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	비수도권 기초·광역, 수도권 접경지역	
	필수과제	•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	•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연간예산	20억 원 이내 ('27년 약 19억 원)	기초 20억 원 이내('27년 약 19억 원) 광역 40억 원 이내('27년 약 37억 원) ※ 세종·제주 30억 원 이내	
	기간	최대 5년간 지원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년 추가 지원)		
지정결과	경기	연천군	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태백시, 횡성군	춘천시	
	충북	보은군, 제천시	음성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아산시	
	전북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청도군	구미시	
	경남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진주시	
	전남광주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광양시	
	대구	군위군	-	
	인천	옹진군	-	
	소계	32개	11개	
계		43개		

평가위원회는 1유형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이 형성됐으며,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부과제로 연결하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교 간 통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교 간 연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논의해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유형 지역(비수도권 기초·광역,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다만,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과거에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올해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컨설팅)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계획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1월(예정)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 여러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과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워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평가 우수사례

담당 부서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진형 (044-203-6340)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044-203-6351)
			주무관	전종희 (044-203-63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평가 우수사례

◈ 1유형 : 인구감소(관심)지역

전남광주 고흥 **정규교과 중심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성장 지원**

- 초등학교가 총 17개교이나 2개교에 관내 초등학생 66%가 집중
- 지역산업, 교육인프라, 도로망, 교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교육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화 교육과정을 설계함
- 교사 간 교육과정·수업을 공동으로 설계해 협력수업·팀티칭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신규교사의 교직 적응과 수업·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인천 옹진 **초분산된 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도서지역 교육모델 운영**

- 최북단 접경지로, 전체 인구 중 19세 이하는 7%, 60세 이상이 49%에 해당
- 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기 중 사전배움과 방학 중 대학·전문기관 현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옹진형 블렌디드 교육 실시
- 초중고 통합운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섬 자체를 특화교육 캠퍼스로 운영하는 '5섬 5색 캠퍼스' 운영 (캠퍼스 간 이동 시 학생 교육전용선 운영 추진)
- 옹진 관내 학교 근무 교원의 성장과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인센티브 지원

충남 금산 **초중고 학교급별 과감한 혁신 모델로 지역 교육역량 강화**

- 면 단위 소규모학교 증가 및 타 지역으로 학생 유출 증가(중학교 졸업생 중 타 지역 진학생 10.4%)
- 초등학교의 경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합하고, 폐교 부지를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로 활용
  - 소규모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가칭금산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차량, 교육시설, 강사인력풀, 예산 등을 통합(원스톱) 지원
- 중·고등학교도 중장기적으로 통합·재구조화를 추진하고, 학기·방학 중에 교과 및 예체능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경북 상주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 전략 수립(모으고, 잇고, 살리고)**

- '26년 대비 '31년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중학교가 8개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교 간 통합,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지원
-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유휴공간 재구조화,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돌봄의 연속성 확보
- 읍면 지역의 마을학교 7개소를 읍면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교사·돌봄인력풀 구축

경남 산청 **소규모학교와 대안교육을 융합한 산청형 대안교육 벨트 완성**

- 전국 지자체 중 인구소멸위기 고위험 전국 7위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중 9개교의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 권역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후 단계적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동시에 학교급별로 초·중·고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전환 추진해 6+3+3 공립 대안교육체제 완성
- 1~2학년은 소속 캠퍼스, 3~6학년은 거점학교 합반 수업을 통해 복식학급을 해소하는 1거점 다(多)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 2유형 :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 등

충북 음성 **지역의 가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교육격차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

- 관내 지역별 특성을 "혁신도시 신도심 집중형, 원도심생활 거점형, 산업·직주 생활권형, 농촌·소규모학교 분산형, 이주배경 교육수요형"으로 구조화
- 소규모학교 4개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원도심-혁신도시의 학교 이음(학교 간 공동 수업, 학생 교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 지원
-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해 학생, 혼합팀(비이주&이주배경학생),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지역생활 적응 지원, 학부모 상담 등 제공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공공기관, 대학,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해 공동 수업안을 개발하고 공동평가·교원연수·수업나눔, 멘토링, 연구경진대회 등을 운영

부산광역시 **작은학교 혁신에서 지역 정주까지 지원**

- 지역 여건에 맞게 공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구조 개선(통합학교 운영), 교원·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은학교 혁신 추진
- 돌봄·방과후의 세 가지 모델(거점학교 중심형, 소규모학교 연합형, 마을 중심형)을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 공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초등다문화 자율학교 운영 및 중등글로컬 미들스쿨 설립
- 지역의 주요 자원을 활용해 <초지역 탐색-중진로 탐구-고과목선택 및 학점 연계>로 이어지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일반계고·직업계고·학교밖청소년 등 대상에 특화된 성장경로 구축 지원